



초등영어 학습자의 가산명사 관정에서 언어적 맥락과 명제적 정보의 활용

이현정 (경인교육대학교) 성민창 (경인교육대학교)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Dec. 23, 2021
Revised: Jan. 18, 2021
Accepted: Jan. 26, 2021

Hyun Jeong Lee (1st author)
Graduate student, Gyeongin Nat'l Univ. of Education
Tel: (031) 470-6330
jemmass@naver.com

Min-Chang Sung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Gyeongin Nat'l Univ. of Education
Tel: (031) 470-6335
mcsung@ginue.ac.kr

ABSTRACT

Lee, Hyun Jeong and Min-Chang Sung. 2021. Korean primary English learners' use of linguistic context and propositional information in the judgment of count nouns.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1, 56-70.

This study examined whether Korean learners of primary English effectively use linguistic context and propositional information to judge the acceptability of English count nouns. To this end, 44 fourth-graders at a primary school in Incheon participated in two tasks of acceptability judgment: sentence-based and picture-based. To make correct judgments about sentences containing count nouns, they had to use the linguistic contexts in the sentence-based task (i.e. determiners preceding the object nouns: e.g. two cats/*cat) and the propositional information in the picture-based task (i.e. number of the referent in each image: e.g. two dogs in a picture). Every sentence began with the 1st-person singular pronoun *I* and a past-tense verb and ended with a locative or temporal adverb phrase to make the number-related morpheme of the object noun less salient. While the participants showed similar levels of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in the two tasks, the between-task correlation was found to be insignificant, which implies that the participants varied from one another in their use of linguistic context and propositional information. In the sentence-based task, they appeared to be less capable of using linguistic context, especially when they had to reject the sentences with incorrect number forms such as *a *cups*. In the picture-based task, they were less able to use propositional information in the pictures to make correct judgments about count-noun forms. In particular, the mean scores were significantly lower for the items visualizing singular entities than those visualizing plural on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primary English grammar education for count nouns and other basic linguistic units should systematically consider form, meaning, and use.

KEYWORDS

primary English education, count noun, form, meaning, use

1. 서론

일반적인 외국어습득 이론에 따르면 목표어의 언어 특질이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거나 모국어의 언어 특질과 차이를 보일 때 외국어습득의 어려움이 발생한다(Mitchell, Myles and Marsden 2019). 대표적인 예로 한국인 학습자의 영어 가산명사 습득을 들 수 있다. 영어 가산명사는 전달하는 명제의 수 정보에 따라 단수형과 복수형으로 쓰이며, 두 형태는 주로 복수 접미사 “-(e)s”의 유무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1a)는 복수형 가산명사 students가 올바르게 사용된 문장이고, (1b)는 단수형 가산명사 student가 잘못 사용된 문장이다.

- (1) a. I interviewed three students.
 b. I interviewed three *student.
- (2) a. 나는 세 명의 학생들을 인터뷰했다.
 b. 나는 세 명의 학생을 인터뷰했다.

한국어에도 복수를 나타내는 접미사 “-들”이 있으나 (2a-b)에서처럼 이를 생략할 수 있거나 생략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예: 두 학생을 vs. ?두 학생들을)가 많다.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은 이러한 언어 간 차이로 인하여 영어의 기초 문법 지식에 해당하는 가산명사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교육 및 연구 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우선 우리나라 영어과 교육과정은 초등학생들이 배워야 할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형식” 중 하나로 가산명사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 p. 189). 그 결과 초등영어 교과서에서 가산명사 관련 학습 활동(예: How many lions?)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초등영어 학습자에게 가산명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다양한 교수법이 개발되었다. 예를 들어, 김수경(2017)은 형태에 초점을 둔 암시적·명시적 교수법을, 김혜영과 구재명(2016)은 어휘 사용 과정에서의 우연적 학습을, 이선민과 김태은(2015)은 학습자 오류에 대한 교정적 피드백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초등영어 학습자의 가산명사 지식을 평가함에 있어 단어 수준의 가산-불가산 구분(예: tables, *furnitures)이나 정확한 관사 표현(예: the/*a cars)에 주목함으로써 초등학생들이 영어 가산명사의 형태를 처리할 때 명제의 수 정보, 선행하는 언어적 맥락, 명사구의 수 자질과 동사 형태 간의 일치 등과 같은 발화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탐구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명사구 three apples에서 가산명사 apples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 선행하는 언어적 맥락인 수사 three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예로 명사구 the apple에서 가산명사 apple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 수에 대한 명제적 정보(= the로 한정 지어지는 사과의 개수)와의 일치 여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영어 학습자들이 가산명사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 언어적 맥락과 명제적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탐구한다. 언어적 맥락은 가산명사를 선행하는 한정사로 제시하고 명제적 정보는 그림 및 사진으로 제공하여 다음의 연구 질문에 초점을 둔다.

- 질문 1. 초등영어 학습자들은 가산명사 형태의 적절성을 판정할 때 언어적 맥락 활용과 명제적 정보 활용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 질문 2. 초등영어 학습자들은 가산명사 형태의 적절성을 판정할 때 언어적 맥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
- 질문 3. 초등영어 학습자들은 가산명사 형태의 적절성을 판정할 때 명제적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

2. 선행 연구

2.1 영어 가산명사

국제적 권위를 가진 영문법 해설서인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Quirk, Greenbaum, Leech and Svartvik 1985)는 영어 명사를 개체 유일성의 유무에 따라 고유명사(proper noun)와 보통명사(common noun)로 구분한 뒤, 보통명사를 가산성 기준으로 가산명사(count noun)와 불가산명사(noncount noun)로 분류하였다¹.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의 의미론적 차이와 관련하여 Quirk et al.(1985, p. 246)은 가산명사의 지시 대상이 셀 수 있는 개별 독립체(an individual countable entity)인 반면 불가산명사의 지시 대상이 분화되지 않는 물질(an undifferentiated mass)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Langacker(1991, p. 70)는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의 의미 차이가 “경계가 있는 영역(bounded region)”의 유무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가산명사의 지시 대상은 개별독립체(예: a house)로서 명확한 영역 경계가 있고 구성체로 분화(예: a door, rooms, a roof)될 수 있는 반면, 불가산명사의 지시 대상은 명확한 경계가 없는 물질(예: water)로서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구성체로 분화되지 않는다.

가산명사는 그 형태적 특성에 따라 복수형으로만 사용되는 명사, 규칙 복수형 명사, 불규칙 복수형 명사로 구분된다(Quirk et al. 1985). 복수형으로만 사용되는 명사에는 scissors와 people 등이 있으며 동일한 지시 대상을 단수형으로 표현하려면 a scissor blade와 a person 등 별도의 명사가 필요하다. 규칙 복수형 명사에는 dog-dogs, fox-foxes, difficulty-difficulties 등이 있는데, 명사 단수형의 각운(rhyme)에 따라 복수형 어미가 규칙적으로 결합된다. 마지막으로 불규칙 복수형 명사에는 무변화(sheep), 모음변화(foot-feet), -en 복수형(child-children), 외래어(analysis-analyses)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는 세 유형의 가산명사 중 두 번째 유형인 규칙 복수형 명사(예: student-students)에 초점을 둔다.

규칙 복수형 명사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은 단어 수준, 구 수준, 절 수준의 지식을 망라하기에 제2언어 학습자에게는 쉽지 않은 문법 과업이다. 더욱이 한국어의 문법 체계와 영어의 문법 체계

¹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는 각각 그 의미에 따라, 구체(concrete) 및 추상(abstract)명사로 분류된다. 구체명사의 예로는 a pig, butter 등이 있고 추상명사의 예로는 a problem, music 등이 있다.

의 차이로 인해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다른 모국어의 영어 학습자보다 영어 명사의 단수형과 복수형을 사용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송이, 김남국(2017)은 영어의 가산명사-불가산명사 구분과 관사 체계가 한국어에는 없기 때문에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명사의 가산성에 주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을 주지하였다. 박은주와 진실로(2011)는 한국어와 영어에는 공통적으로 복수형 형태소가 존재하지만 영어의 경우 복수의 대상을 지시하기 위해 반드시 복수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반면, 한국어의 경우 꼭 그렇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언어 간 차이로 초등학생들이 영어 가산명사를 배우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다음 장에서 초등영어교육의 맥락에서 가산명사와 관련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논의한다.

2.2 초등영어교육에서 가산명사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40개의 범주에 걸쳐 350개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형식”을 제시하며, 각 언어형식의 학습이 바람직한 학교급을 함께 명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언어형식 목록의 첫 번째 범주가 명사의 종류(예: 고유명사, 일반명사 등)인데, 범주 내 11개의 언어형식 중 가산명사의 단수 및 복수 형태를 초등학교에서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한 언어형식으로 명시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가산명사의 형태에 대한 교육과정의 예시문(A boy/The boy/The (two) boys ran in the park)이 언어적 맥락(a boy vs. two boys)과 명제적 정보(the boy vs. the boys)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언어적 맥락이란 가산명사를 선행하는 한정사를 지칭하고, 명제적 정보란 표현하려는 명제(예: 사건, 계획)에서 특정한 가산명사로 지칭되는 대상의 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초등영어 학습자들이 가산명사의 수 형태를 배울 때 언어적 맥락과 명제적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초등영어 교과서에서도 가산명사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우선 교육과정의 초등권장어휘 중 교과서에 반영된 비율에서 명사가 다른 품사들보다 높게 나타났다(이혜형 2008). 초등영어 교과서의 단원별 신출 어휘에서도 명사의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각 단원의 새로운 주제와 관련하여 1~2음절의 쉽고 간단한 명사가 신출 어휘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었다(오인생, 홍경선 2015, 홍미영 2015). 초등영어 교과서에 제시된 명사 중에서 가산명사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읽기 활동의 신출 어휘의 경우 일반명사의 약 71% 이상이 가산명사에 해당되었다(하영아 2008).

우리나라 초등영어교육에서 가산명사가 가지는 이러한 중요성에 입각하여 가산명사의 단수형과 복수형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다양한 교수법이 개발되고 교육 현장에 적용되어 왔다(김수경 2017, 김유정, 홍선호 2017, 김혜영, 구재명 2016, 이선민, 김태은 2015, 이효주 2014). 김수경(2017)은 초등영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서는 언어적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형태 초점 접근법을 기반으로 한 명시적 교수법과 암시적 교수법의 효과를 비교 검증하였다. 문법성 판단 과제 결과, 가산명사와 관련된 문법 지식을 함양함에 있어서 명시적 교수가 암시적 교수에 비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영과 구재명(2016)은 우연적인 학습(incidental learning)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형태 중심 교수법과 형태 초점 교수법을 제공하였는데, 두 교수법 모두 가산명사 복수형 학습에 효과적이었다. 한편, 오류 수정의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는데, 초등영어 학습자들이 영어쓰기에서 빈번하

게 범하는 가산명사 오류가 교사의 직·간접적 피드백으로 점차 교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김유정, 홍선호 2017, 이선민, 김태은 2015).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그리고 교수자의 노력으로 초등영어 학습자들이 가산명사의 단수형 및 복수형에 대한 암시적/명시적 지식을 일정 수준 갖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하영아(2008)의 연구에서 초등영어 학습자들은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를 구분하여 부정관사 및 복수형 형태소의 문법성을 적절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초등영어 학습자들은 가산명사 사용에 개입하는 복합적인 정보를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는데, 신명희(2003)는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They are *pig와 같은 명사의 복수형 오류를 빈번하게 발견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오류는 초등영어 학습자가 명사의 수에 대한 명제적 정보(예: 여러 마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결과이다. 초등영어 학습자의 영어 쓰기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오류(예: He had cool *ear; They are really cool *brother)가 확인되었다(최란 2014). 또한 동일한 쓰기 과업에서 초등영어 학습자들은 언어적 맥락 활용의 어려움을 보여주었는데, 단수형이 요구되는 언어적 맥락에서 복수형 가산명사를 사용하거나(a *cookies, a *bullies) 복수형이 요구되는 언어적 맥락에서 단수형 가산명사(many *person, many *picture)를 사용하는 오류를 보였다.

위의 발견을 통해 초등영어 학습자들이 가산명사 문법 지식을 분류적 체계(예: 가산명사는 부정관사와 복수형이 가능하나, 불가산명사는 불가능함)로써만 활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즉, 초등영어 학습자들은 가산명사에 가능한 언어적 형태와 불가능한 언어적 형태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나, 이를 언어적 맥락(예: a ____, many ____)과 명제적 정보(예: 개체 및 인물의 수)와 통합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영어 학습자들이 가산명사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 언어적 맥락과 명제적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2020년 7월 인천광역시의 한 공립초등학교 4학년 2개 반 44명(남 20명, 여 2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해당 학교는 대도시에 소재한 40학급이 넘는 대규모 학교로 대다수의 학생이 학교 주변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중위권 경제적 수준의 학구에 속한다. 일부 학생은 보습학원과 학습지의 형식으로 영어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나, 영어 개인교습이나 해외 연수 등의 사교육을 받은 학생은 없어 상-중-하위 학생 간의 영어 학습 수준 차가 크지 않은 편이다. 2020년 6월에 실시된 4학년 영어 진단평가 성적에 따르면, 상위, 중위, 하위 학습자는 각각 16명, 20명, 8명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3학년 때부터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주당 2시간씩 영어 수업에 참여해 왔다. 연구가 실시되었던 4학년 1학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대부분의 영어 수업이 온

라인으로 이루어졌다. 4월에서 5월까지의 모든 영어 수업이 온라인으로 실시되었고, 대면 수업이 재개된 6월부터는 1시간의 대면 수업과 1시간의 온라인 수업이 실시되었다. 대면 수업 시에는 방역 지침에 의거하여 1학급에서 10여 명의 학생이 영어 수업을 받았으며, 짝활동이나 모둠활동 등은 실시하지 않고 강의식 수업, 개별 활동 위주의 영어 학습이 이루어졌다. 영어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도는 대부분 긍정적이거나 보통으로 나타났다. 학습자들의 일반적 학습 태도는 통상적인 4학년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집중 시간이 다소 짧고, 과업 수행 시 쉽게 지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한 개별 온라인 학습 시간이 길어지면서 학습 태도와 습관 유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3.2 연구 절차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규칙 복수형 가산명사 지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두 종류의 적절성 판단 과업(문장 기반 과업, 그림 기반 과업)을 개발한 뒤, 별도의 학습자 그룹(16명)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을 실시하여 두 적절성 판단 과업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실험은 2개 학급의 아침활동 시간을 활용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출석번호 홀짝 분산 등교로 총 4일에 걸쳐 실시되었다(A반 홀수 측정일: 7월 1일, A반 짝수 측정일: 7월 2일, B반 홀수 측정일: 7월 8일, B반 짝수 측정일: 7월 9일). 모든 과업은 지필고사로 진행되었고, 각 과업별로 10여 분이 소요되었다. 참여자들은 실험에 앞서 과업의 결과가 학교 성적에 반영되지 않음을 안내 받았으며, 문제지의 그림이나 글자가 모두 이해 가능할 정도로 선명한지 확인하였다. 교사는 과업 수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하였고, 과업 진행 중 가산명사 지식과 관련이 없는 질문(예: 단어 발음)에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임의 응답을 방지하였다.

학생 응답 채점 시, 모든 목표 문항에 1점씩 배정하여 과업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술통계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문장 기반 과업과 그림 기반 과업 간 점수 유사성을 검사하고 각 과업 내 문항 유형별(예: 단수 vs. 복수) 평균 점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과 일표본 및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3.3 측정 도구

본 연구는 초등영어 학습자의 가산명사 지식을 측정하고자 문장 기반 과업과 그림 기반 과업을 개발하였다. 초등학생들의 짧은 주의집중 시간(attention span)을 고려하여 두 과업 모두 12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문항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불가산명사를 제시하는 허위 문항(filler item)이 4개 포함되어 있었다. 각 문항의 목적어 명사를 선정할 때, Shintani와 Ellis(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초등학생들에게 친숙한 세 개의 의미 범주(동물, 집기, 채소/과일)를 순차적으로 반영하였다.

3.3.1 문장 기반 과업

문장 기반 과업은 초등영어 학습자가 가산명사를 포함하는 문장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 언어적 맥락인 한정사를 고려하는지 탐구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모든 문항은 1형식 주어 I와 과거형 동사로 시작하고, 목적어 자리에 [한정사+명사] 구조의 명사구를 제시하였으며, 단수형 및 복수형 명사 어미의 시각적 현저성(salience)을 줄이고자 시간 부사 yesterday를 문미에 제시하였다. 4개의 허위 문항을 제외한 8개의 목표 문항은 단수형 및 복수형 가산명사를 목적어로 가지는데, 명사를 선행하는 한정사가 단수형 혹은 복수형 명사의 언어적 맥락을 형성하였다. 8개의 목표 문항 중 4개의 문항에서는 가산명사의 형태가 한정사에 맞게 사용되었고, 나머지 4개의 문항은 틀리게 사용되었다. 문장 기반 과업에 사용된 문항의 구성 및 예시는 표 1과 같다.

표 1. 문장 기반 과업 문항 구성

문항 구분	언어적 맥락	명사 수 형태	예시
목표(8문항)	단수(a, one)	맞음	I bought one table yesterday.
		틀림	I made a *cups yesterday.
	복수(two, many)	맞음	I had two oranges yesterday.
		틀림	I bought many *apple yesterday.
허위(4문항)	해당 없음		I had the juice yesterday.

연구자는 참여 학생들에게 각 문장을 읽고 해당 문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선택하도록 안내하였는데,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어휘 수준을 고려하여 불규칙 과거 동사의 뜻을 과거형 동사 밑에 우리말로 제시하였다. 12개의 문항 모두 시험지 1면에 임의 순서로 제시하였으며, 시험지의 왼쪽에는 문장을 오른쪽에는 선택항을 배치하였다 (그림 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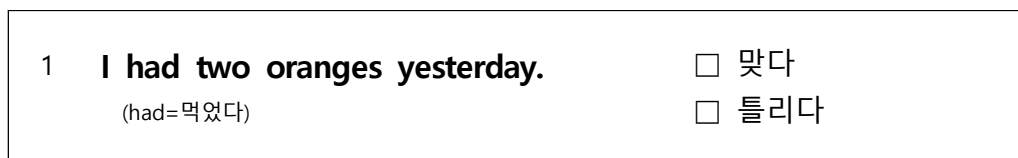


그림 1. 문장 기반 과업 문항 예시

3.3.2 그림 기반 과업

그림 기반 과업은 초등영어 학습자가 가산명사를 포함하는 문장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 그림 및 사진으로 제시된 명제적 정보를 고려하는지 탐구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문장 기반 과업과 동일하게 모든 문항은 1형식 주어와 과거형 동사로 시작하였고, 목적어 자리에 [한정사+명사] 구조의 명사구를 제시하였다. 또한 단수형 및 복수형 명사 어미의 현저성을 줄이고자 장소 부사구(예: in

the park)를 문미에 제시하였다. 4개의 허위 문항을 제외한 8개의 목표 문항은 단수형 및 복수형의 가산명사를 목적어에 가지는데, 명사를 선행하는 한정사를 my와 the로 제한함으로써 단수형과 복수형이 모두 가능한 중립적 언어 맥락을 형성하였다(예: my book/books). 이때, 문장과 함께 제시된 그림 및 사진이 목적어 명사의 수에 대한 명제적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4개의 목표 문항에서는 단수형 명사 정보를 시각화(예: 그림 속 고양이 한 마리)하였고 나머지 4개의 목표 문항에서는 복수형 명사 정보를 시각화(예: 사진 속 강아지 두 마리)하였다. 그림 기반 과업에 사용된 문항의 구성 및 예시는 표 2와 같다.

표 2. 그림 기반 과업 문항 구성

문항 구분	명제적 정보(그림/사진)	명사 수 형태	예시
목표(8문항)	단수 명사	맞음	I put the chair in my room.
		틀림	I saw the *cats on the sofa.
	복수 명사	맞음	I fed the ducks in the park.
		틀림	I took my *dog to the park.
허위(4문항)	해당 없음		I had the coffee in the park.

연구자는 참여 학생들에게 그림을 보고 주어진 문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선택하도록 안내하였는데, 문장 기반 과업과 동일하게 불규칙 과거 동사의 뜻을 과거형 동사 아래에 우리말로 제시하였다. 그림 기반 과업에 사용된 그림 및 사진은 목적어 명사구의 수 정보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각 그림 및 사진이 크고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1면에 4개 문항씩 칼라 인쇄하였고, 12개의 문항을 3면의 시험지에 임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시험지의 왼쪽에는 그림 혹은 사진을 오른쪽에는 영어 문장과 선택항을 배치하였다(그림 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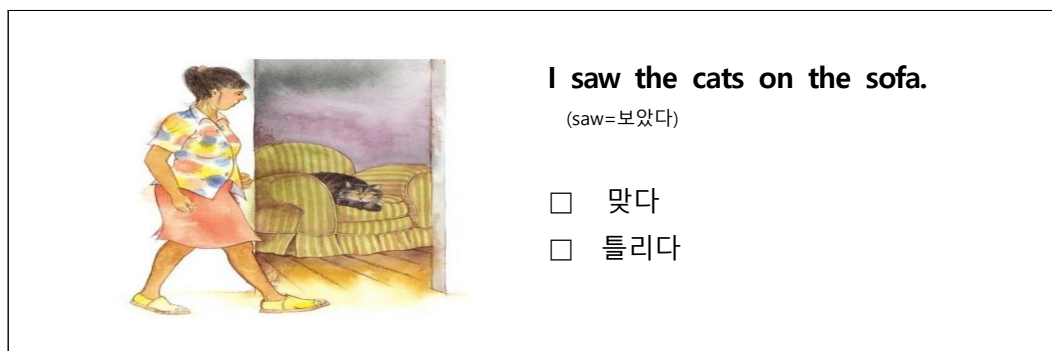


그림 2. 그림 기반 과업 문항 예시

4. 결과

4.1 과업 간 비교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이 문장 기반 과업과 그림 기반 과업에서 획득한 문장 판단 점수를 분석한 결과, 두 과업에서 비슷한 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t(43) = 0.649, p = .520$: 표 3 참고). 문장 기반 과업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4.34와 1.45이고, 그림 기반 과업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4.16과 1.38로 나타났다. 일견으로 평균과 표준편차의 유사성은 명사 단수형 및 복수형이라는 동일한 영문법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두 유형의 과업을 동일한 학습자 집단이 반복 응시한 결과로 분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학생별 문장 판단 점수를 두 과업 간 상관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r = .135, n = 44, p = .381$).

표 3. 평균 및 상관 분석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r	p
문장 기반 과업	4.34	1.45	.135	.381
그림 기반 과업	4.16	1.38		

* 비교: 과업별 8점의 만점. 평균과 표준편차는 소수점 둘째 자리로 반올림한 것임.

두 과업의 점수가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 원인을 밝히고자 개별 학생의 점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문장 기반 과업의 점수와 그림 기반 과업의 점수가 유사하지 않은 참여자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4는 문장 기반 과업과 그림 기반 과업의 점수 차를 기준으로 참여 학생들의 수를 정리한 것인데, 2 이상의 점수 차를 보인 학생들이 16명(36.4%)으로 나타났다. 각 과업의 만점이 8점이고 과업별 평균이 4점대였음을 고려하였을 때, 2 이상의 점수 차는 상당한 수준의 점수 차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문장 기반 과업과 그림 기반 과업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학생별 점수를 분석하였을 때 점수 유사도가 높지 않았으며 큰 점수 차를 보인 학생들이 약 3명 중 1명으로 나타났다.

표 4. 두 과업 간 점수차별 학생 수

점수 차	0	±1	±2	±3 이상
학생 수	10	18	7	9

4.2 문장 기반 과업

문장 기반 과업은 일반적인 문법성 판단 시험의 형태를 취하며, 명사 단수형 및 복수형이 올바르게 사용된 문장(예: I had two oranges yesterday)과 잘못 사용된 문장(예: I made a *cups

yesterday)을 각각 4개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관사 혹은 수사의 언어적 맥락을 활용하여 후행하는 명사의 수 형태가 정확한지 판정하여야 했는데, two oranges는 two라는 수사가 복수형 명사의 언어적 맥락을 형성하고 그에 맞게 복수형 명사 oranges가 사용된 것인 반면(= 복수형 맥락, 정문), a cups는 a라는 부정관사가 단수형 명사의 언어적 맥락을 형성하였는데 복수형 명사 cups가 잘못 사용된 예이다(= 단수형 맥락, 비문). 맥락 유형과 문장 유형에 따라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표 5. 문장 기반 과업 영역별 결과

문장 유형	단수형 맥락		복수형 맥락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정문	1.20	0.77	1.30	0.77	2.50	1.13
비문	0.93	0.73	0.91	0.68	1.84	0.94
합계	2.14	1.13	2.20	1.09	4.34	1.45

맥락 유형별 점수를 분석한 결과, 단수형 명사가 사용되어야 하는 맥락과 복수형 명사가 사용되어야 하는 맥락에서의 문법성 판단이 모두 2점대 초반의 평균(2.14; 2.20)을 보였고, 두 평균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t(43) = -0.268, p = .790$). 한편, 각 맥락별 만점이 4점이고 선택항이 2개(맞다, 틀리다)였기 때문에 임의 응답도 확률적으로 2점의 평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일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맥락 유형별 평균 점수가 임의 응답 점수(2점)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수형 맥락($t(43) = 0.798, p = .429$), 복수형 맥락($t(43) = 1.244, p = .220$). 즉, 학생들의 맥락 유형별 평균이 임의 응답의 점수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인데, 이는 초등학생들이 단수형 및 복수형 명사구 지식을 언어적 맥락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문장 유형별 점수를 분석한 결과, 정문의 평균점수(2.50)가 비문의 평균점수(1.8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응표본 t-검정은 이를 유의미한 평균 차이로 판정하였다($t(43) = 2.928, p < .01$). 즉, 명사구 수 형태가 잘못 사용된 문장보다 명사구 수 형태가 맞게 사용된 문장을 판정할 때, 학생들의 판정 정확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정문 판정의 상대적 우위는 단수형 명사의 맥락(1.20 vs. 0.93)과 복수형 명사의 맥락(1.30 vs. 0.91)에서 모두 관찰되었는데, 불확실한 문법 지식을 가진 외국어 학습자가 원어민에 비해 문장을 수용한다는 경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Sabourin and Haverkort 2003). 한편,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임의 응답의 확률적 평균이 2점임을 고려할 때, 비문 판정 평균 점수가 1점대 후반이라는 결과는 학생들이 언어적 맥락을 활용하여 명사구 수 형태 오류를 배척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문장 기반 과업에서 참여 학생들은 단수형 명사의 판정과 복수형 명사의 판정에서 모두 낮은 수준의 정확도를 보였고, 특히 언어적 맥락과 명사 수 형태 간의 불일치(예: a *cups)를 배척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4.3 그림 기반 과업

그림 기반 과업에서 학생들은 그림 또는 사진이 제시하는 시각적 명제 정보(예: 강아지 두 마리)에 맞게 가산명사의 단수형 및 복수형이 사용되고 있는지 판정하여야 했다. 즉 문항별 문장(예: I took my dog to the park)만으로는 오류를 찾을 수 없고, 함께 제시된 시각적 정보(= 사진 속에 개가 몇 마리 있는지)와 가산명사 수 형태 간의 일치 여부에 따라 문장의 맞고 틀림을 판정할 수 있다.

정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단수 정보보다 복수 정보에서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1.80 vs. 2.36), 그 차이는 유의미하였다($t(43) = 3.538, p < .01$). 복수 정보 활용의 상대적 우위는 정문과 비문 문항 모두에서 확인되었는데, 특히 복수 정보가 올바르게 사용된 문항에서 가장 높은 평균(1.61)을 보였다. 즉, 그림 및 사진 속 복수 명사 정보가 문장 판단의 정확성을 높였는데, 특히 복수형 명사가 올바르게 사용된 문장을 수용하는 데 가장 큰 효과가 있었다.

표 6. 그림 기반 과업 영역별 결과

문장 유형	단수 정보		복수 정보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정문	1.11	0.66	1.61	0.54	2.73	0.82
비문	0.68	0.67	0.75	0.75	1.43	1.09
합계	1.80	0.93	2.36	0.81	4.16	1.38

문장 유형별 점수를 분석한 결과, 정문의 평균(2.73)이 비문의 평균(1.4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유의미하였다($t(43) = 6.415, p < .001$). 동일한 패턴의 상대적 우위(정문>비문)가 문장 기반 과업에서도 확인되었으나, 그림 기반 과업에서 더 큰 평균 차(0.66 vs. 1.30)를 보였다. 그림 기반 과업에서 비문 판정의 평균(1.43)이 임의 응답의 확률적 평균(2점)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t(43) = -3.468, p < .001$), 이는 학생들이 문장의 시각적 정보를 활용하여 가산명사의 수 형태 오류를 배척하는 데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문장(예: I took my dog to the park) 자체로는 문법적 오류가 없으나, 단수와 복수에 대한 시각적 명제 정보를 활용하여 가산명사의 수 형태가 잘못되었음을 파악하기가 학생들에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종합하면 초등학생들은 그림 기반 과업의 올바른 명사 형태를 수용함에 있어서 단수형 명사의 시각적 정보보다 복수형 명사의 시각적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잘못된 명사 형태를 배척함에 있어서 그림의 시각적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영어 학습자들이 가산명사 단수형 및 복수형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 언어적 맥락과 명제적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 탐구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장 기반 과업과 그림 기반 과업을 실시하였는데, 각 과업은 언어적 맥락과 명제적 정보를 가산명사 앞의 한정사와 그림 및 사진의 시각적 정보로 제공하였다. 두 과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에 입각하여, 각 연구 질문에 대한 주요 발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 질문은 “초등학생들이 가산명사 형태의 적절성을 판정할 때 언어적 맥락 활용과 명제적 정보 활용에서 차이를 보이는가?”였다. 두 과업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만을 비교할 때, 참여 학생들이 가산명사의 단수형 및 복수형 판정에서 언어적 맥락과 명제적 정보를 비슷한 수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상관분석 결과 두 과업 점수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상당수의 학생들이 두 과업에서 큰 점수 편차를 보였다. 즉, 가산명사 형태의 적절성 판정에서 어떤 학생들은 언어적 맥락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한 반면, 다른 학생들은 명제적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한 셈이다.

이처럼 초등영어 학습자가 가산명사의 형태를 판정할 때 언어적 맥락과 명제적 정보의 활용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영문법 학습과 활용이 형태-의미-사용(form-meaning-use)의 복합적 지식 체계를 전제한다는 것을 시사한다(Goldberg 1995, 2019, Larsen-Freeman et al. 2015). 예를 들어, 가산명사의 습득과 사용은 단수형과 복수형의 형태론적 차이에 대한 지식(예: book vs. books)뿐만 아니라 명사의 형태가 명제의 수 정보를 표현한다(예: 여러 권의 책 = the books)는 지식과 인접한 언어적 맥락에 맞게 사용된다(예: a book, many books)는 지식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초등영어 학습자가 언어적 맥락과 명제적 정보의 활용에서 차이를 보였다는 본 연구의 발견은 개별 학습자의 가산명사 지식이 특정 문법 영역(cf. form)에 편중되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언어적 맥락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했다는 결과는 Pinemann(1998)의 처리능력 이론(processability hypothesis)과 관련이 있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가산명사의 불규칙 복수형을 단어 수준으로 판정(feet vs. *foots)하는 것보다 가산명사의 규칙 복수형을 구 수준으로 판정(a cat vs. a *cats)하는 것에서 더욱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이 요구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산명사의 교수-학습 난이도를 규칙성 여부로만 판단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은 “초등학생들이 가산명사 형태의 적절성을 판정할 때 언어적 맥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였다. 문장 기반 과업에서 학생들은 4.34의 평균을 보였는데, 이는 임의 응답의 확률적 점수(4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이다. 특히 잘못된 명사 수 형태(예: a *cups)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임의 응답의 확률적 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초등학생들이 언어적 맥락을 활용하여 명사 수 형태를 처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명사 수 형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심이 기울여질 필요가 있다.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명사 수 형태를 예시하기 위해 사용된 문장은 다음과 같다: A boy/The boy/The (two) boys ran in the park. 해당 예시문이 부정관사와 정관사의 구분이 아닌 일반 가산명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관사보다는 수량

사와 명사 간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예: A boy/One boy/Two boys/Many boys ran in the park). 초등영어 수업 현장에서도 단어 수준에서만 명사 수 형태를 다루기(예: cat-cats)보다는 구 수준에서 명사 수 형태(예: a cat-two cats)를 다루어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 연구 질문은 “초등학생들이 가산명사 형태의 적절성을 판정할 때 명제적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였다. 그림 기반 과업에서도 초등영어 학습자들은 임의 응답 수준의 평균(4.16)을 보였다. 즉, 학생들은 가산명사 형태를 판정할 때 그림 또는 사진으로 제시된 명제적 정보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였다. 문장 기반 과업에서처럼, 그림 기반 과업에서도 올바른 수 형태를 수용하는 것보다 잘못된 수 형태를 배척하는 것에서 더 큰 어려움을 보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학생들이 그림 또는 사진에서 단수 정보보다 복수 정보를 더 잘 활용했고, 그 차이가 유의미했다는 결과이다. 즉, 대상이 하나인 이미지를 보았을 때보다 대상이 여럿인 이미지를 보았을 때 판정 점수가 더 높았다. 이 현상의 원인으로 지각적 현저성(perceptual salience)을 들 수 있는데, 단수 개체의 이미지보다는 복수 개체의 이미지가 수 정보를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었다는 해석이다.

Hickmann et al.(2017)에 따르면 특정 의미 자질이 현저하게 지각될수록 그 의미 자질이 언어 사용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하면 학생들이 복수 개체의 시각적 이미지를 현저하게 지각하여 가산명사 복수형에 대한 지식을 문장 판정에 반영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지각적 현저성의 개념은 교육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한데, 개체 수에 대한 명제적 정보를 더욱 두드러지게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수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책을 읽기 전에 교사는 picture walk 활동을 실시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그림 속 대상의 개수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예: What do you see? How many?)할 수 있다. 또한 단수 정보를 시각적으로 현저하게 만들기 위하여, 단일 개체 테두리를 굵은 선으로 표시하거나 일부 이미지를 확대하는 등의 교육적 노력이 가능할 것이다.

정리하면 명사 수 형태는 초등학교급에 적합한 기초 영문법 지식에 해당하나, 초등영어 학습자들은 단수형 및 복수형 명사 처리에서 언어적 맥락과 명제적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슷한 유형의 어려움이 다른 기초 영문법 항목(예: 격, 시제)에서도 존재하는지 후속 연구를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우리말과 영어에서 차이를 보이는 언어적 특질을 초등영어 학습자에게 교육할 때, 형태뿐만 아니라 의미와 사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교육영문법적 체계(양현권, 정영국 2008, Larsen-Freeman et al. 2015)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곽은주 · 진실로(Kwak, E. and S. Chin). 2011. 텍스트 차원에서의 복수 표현의 영한번역 전략 (English-Korean translational strategies of plural expressions in texts). 《번역학연구》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12-1, 7-34.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2015. 『영어과 교육과정』(Curriculum for English Language Education). 서울: 교육부(Seoul: Ministry of Education).

- 김수경(Kim, S.). 2017. 초등영어 언어 형식 학습에서 명시적 교수법과 암시적 교수법의 효과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Effects of Explicit Teaching and Implicit Teaching on Language Form Learning in Elementary English Classes*). 석사학위논문(Master's thesis), 한국교원대학교.
- 김유정·홍선호(Kim, Y. and S. Hong). 2017. 대화식 저널 쓰기 활용 교사 피드백이 초등영어 학습자의 문법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s of corrective feedback in dialogue journal writing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grammatical accuracy). 《언어학연구》(*Journal of Linguistic Studies*) 22-2, 19-37.
- 김혜영·구재명(Kim, H. and J. Koo). 2016. 형태 중심과 형태 초점의 어휘 지도 방법이 우연적인 문법 습득에 미치는 영향(Effects of teaching vocabulary through focus on forms and focus on form instruction on the incidental acquisition of L2 grammar). 《영어영문학 21》(*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21*) 29-3, 273-296.
- 신명희(Shin, M.). 2003. 초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발화 분석을 통한 중간 언어 특성 고찰(*Interlanguage Utterance Analysis in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English*). 석사학위논문(Master's thesis), 한국교원대학교.
- 양현권·정영국(Yang, H. and Y. Jeong). 2008. 『교육영문법의 이해』(*Understanding Educational Grammar of English*). 서울: 한국문화사(Seoul: Hankook Press).
- 오인생·홍경선(Oh, I. and K. Hong). 2015. 2009 개정 교육과정용 초등 6학년 영어 교과서 5종의 어휘항목 분석(An analysis of the vocabulary lists for 6th-grade English textbooks on 2009 revised national curriculum). 《언어학연구》(*Journal of Linguistic Studies*) 20-2, 95-120.
- 이선민·김태은(Lee, S. and T. Kim). 2015. 간접적 피드백의 유형에 따른 문법 오류 수정과 문장 쓰기 능력 향상(Effects of the different types of indirect corrective feedback on grammatical error correction and sentence-level writing ability). 《한국초등교육》(*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26-4, 141-162.
- 이송이·김남국(Lee, S. and N. Kim). 2017. 한국 대학생의 명사 가산성 인식 연구(A study on perception of countability of English nouns). 《언어학연구》(*Journal of Linguistic Studies*) 42, 25-47.
- 이혜형(Lee, H.). 2008.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기본 어휘 목록 비교 분석(*A Comparative Study on the English Basic Vocabulary Lists of the 7th and Revised National Curricula*). 석사학위논문(Master's thesis), 충신대학교.
- 이효주(Lee, H.). 2014. 멀티미디어 활용을 통한 초등영어 문법능력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A Study of Improvement of Elementary English Grammatical Ability Through Multimedia*). 석사학위논문(Master's thesis), 국민대학교.
- 최란(Choi, R.). 2014. 오류일지 활용 피드백이 초등영어 학습자의 오류에 미치는 영향(*Effects of Error-Log Based Feedback on Errors in Primary English*). 석사학위논문(Master's thesis), 서울교육대학교.

- 하영아(Ha, Y.). 2008. 초등학생의 영어 명사 가산성 이해에 관한 연구(*A Study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Use of English Noun: Focused on Understanding of Countability*). 석사 학위논문(Master's thesis), 한국교원대학교.
- 홍미영(Hong, M.). 2015. 코퍼스 기반 초등학교 6학년 검정 영어 교과서 어휘 분석(*A Corpus-Based Analysis of Vocabulary in Elementary English Textbooks for the Sixth Grade*). 석사학위논문(Master's thesis), 대구교육대학교.
- Mitchell, R., F. Myles and E. Marsden. 2019. *Second Language Learning Theories*. London: Routledge.
- Goldberg, A. E. 1995. *Constructions: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oldberg, A. E. 2019. *Explain Me This: Creativity, Competition, and the Partial Productivity of Construc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ickmann, M., H. Engemann, E. Soroli, H. Hendriks and C. Vincent. 2017. Expressing and categorizing motion in French and English: Verbal and non-verbal cognition across languages. In I. Ibarretxe-Antuñano, ed., *Motion and Space Across Languages: Theory and Applications*, 61-94. Amsterdam: John Benjamins.
- Langacker, R. 1991. *Concept, Image, and Symbol: The Cognitive Basis of Grammar*. Berlin: Mouton.
- Larsen-Freeman, D., M. Celce-Murcia, J. Frodesen, B. White and H. Williams. 2015. *The Grammar Book: Form, Meaning, and Use for English Language Teachers*. Boston: National Geographic Learning.
- Pienemann, M. 1998. *Language Processing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rocessability Theory*. Amsterdam: John Benjamins.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Harlow, Essex: Longman.
- Sabourin, L. and M. Haverkort. 2003. Neural substrates of representation and processing of a second language. In R. van Hout, A. Hulk, F. Kuiken and R. Towell, eds., *The Lexicon-Syntax Interfa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75-195. Amsterdam: John Benjamins.
- Shintani, N. and R. Ellis. 2010. The incidental acquisition of English plural -s by Japanese children in comprehension-based and production-based lessons: A process-product study.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32(4), 607-637.

예시 언어(Examples in): 영어(English)

적용 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영어(English)

적용 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초등학생(Elementary school students)